



‘폰수 엄마’ 타이틀 달고 제2 전성기 불교 색채 띤 영화 ‘가족의 탄생’ 서 여주인공들 정점이 있다 평 받기도 부처님 말씀 따르면 행복해져요

밝은 표정 지으면 좋은 일 생겨요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 진행자 김혜옥씨

“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불교방송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아름다운 초대’ (매일 오전 11시)를 하면서 자꾸 밝아지고 웃게 되니까 하고 싶었던 역할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를 1년이 넘도록 맡아 진행하고 있는 배우 김혜옥씨. 최근 드라마 ‘별난여자 별난남자’ (KBS), ‘DR.깡’ (MBC), ‘진짜진짜 좋아해’ (MBC) 등에서 사랑스러운 폰수엄마 역할을 해내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요즘 저에게 ‘폰수엄마’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는 데는 무슨 게 다 그런 것 아닌가요? 평소 심각하고 진중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은 모르는 게 시는데 편해요.”

세 드라마에서 맡은 역 중 DR.깡의 ‘달고엄마’ 역을 으뜸으로 꼽는다. “두 번째 화실에 맞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달고엄마는 이 말을 터득한 것 같다”는 김혜옥씨는 나쁜 말을 해도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는 달고엄마를 닮고 싶다고 말한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가족의 탄생’에서는 “정에 해픈 여주인공들의 정점에 김혜옥(매자 역)이 있다”는 평을 받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가족의 탄생”은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 그 주제도 인연”이라고 영화를 소개하는 김혜옥씨는 영화 개봉 후 쉬고 싶어 하는 김태용 감독과 프로듀서에게 쟁계사 국사암을 소개해 머무르게도 했다.

“솔직히 영화가 흥행이 잘 안됐잖아요. 감독과 프로듀서 모두 실망하고 있던 차에 국사암에 갔어요. 그런데 국사암에서 며칠 머무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장기상영이 결정됐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 가피가 아니고 뭐겠어요.”

김혜옥씨는 스스로 내가 불자구나 하고 생각했던 때가 나이 40 될 때였다고 고백한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는 일 말고 종교로서의 불교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김혜옥씨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시름시름 앓고 있던 김혜옥씨를 마곡사로 데려갔다.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경 스님이 책을 한 보따리 선물해 주시더군요. 주지 진허 스님은 매일 108배 하면서 엮불하라고 말씀해주셔서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죠.”

그렇게 매일 108배를 하며 부처님 말씀에 빠져 들었다. 법집 스님 책에서부터 죽음에 관련된 책까지 불서도 많이 봤다. 몇 년 후 김혜옥씨를 불교로 이끌었던 동생마저 떠나보냈다. 동생이 남긴 유품 속에는 절 입장권, 여러 경전을 사경한 공책 등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 것들을 보면서 좀더 불교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동생 덕분에 불교공부하게 된 거예요. 공부라고 해야 책 읽고 마음 깊이 부처님 말씀을 지키려고 따르는 것뿐이지만요.”

불교방송 진행자를 맡기 전 김혜옥씨는 세종문화회관 소속 시립극단 단원이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당시 방송과 연극을 병행하며 한창 바빴 때였다. 불교방송에서 진행자를 맡아달라는 요청에 김혜옥씨는 시립극단 단원을 포기했다. 꼭 불교방송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다.

“이전 나눴던 삶을 살아야죠. 내가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평소 말하던 김혜옥씨는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 사용돼 달라고 5000원을 선뜻 성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부처님들, 제가 불교를 이론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르면 복 받고 사랑도 생기고 행복해져요. 제가 그 증인이니까요. 제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잘 실천하시고 행복해지세요.”

글=김지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창작 이미지극 ‘두 문 사이’
사다리아트센터 네모극장, 7월 2일까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제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근대사의 모습을 전통악기와 음악의 변형, 영상의 표현과 움직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표현해낸 창작 이미지극 ‘두 문 사이’가 7월 2일까지 관객들과 소통한다.

일제에 징용되어 죽은 군인의 그리움은 천둥이 되고 바람이 된다. 그 소리는 망자를 깨우고 죽은 병사는 열려진 사문으로 들어온다. 회화된 잠중군인들을 만난 한 여인은



돌아온 병사의 뱃가죽이 폭포처럼 흘날린다.

8개 장면으로 구성, 한국적 마음

군인들에게 육신과 오장육부를 수탈당한채 그리움 슬픔 원망 아픔을 자궁 속에 담아 임태한다.

부종(臃腫) 군인과 영매 술사들이 등장해 임태된 영의 이야기를 듣고 천도에 나서고 망자들의 살판 죽을판 놀음은 병주교 약주는 꼭두놀음 출판으로 이어진다. 기다림에서부터 회귀까지 총 8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두 문 사이’는 한국적 무대언어를 개발해온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한국적 죽음의 정서를 삼베로 표현한 한국적 마임극 ‘두 문 사이’는 움직임과 소리, 영상과 빛으로 죽음을 말한다. 죽장과 꼭두, 살판이 등을 버무려 막힌 듯 열려진 무대를 묘사해냈다.

거기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뱃가죽, 꼭두가 조종하는 꼭두, 무경을 열면 수천 개의 영혼조각이 솟아오르는 상자 등 기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무대가 배우들이 온 몸으로 보여주는 몸 언어를 뒷받침한다.

김지연 기자 jiyang@buddhapia.com



다섯 번째 장 ‘부종 군인과 수탈된 영’의 한 장면.

사다리아트센터 네모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두문사이’는 2006년 춘천다인축제에서 기존의 한국적인 기법을 사용한 전통연극과 다른 방법으로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해 낸 작품으로 인정받아 8월에 열리는 2006 프랑스 미모스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됐다. (02)744-0300

풍성함과 청아함... 二色? 異色?

‘아미&유경의 이색화음’

국립국악원 우면당, 7월 6일

우리나라 전통 정가(正歌)로 조지훈의 시 ‘승무’를 감상해보자.

국립국악원 목요상설무대 제 275회 음악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가 여성 이종창 ‘아미&유경의 이색화음’을 선보인다. 현대 창작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혼자서 부르던 정가의 노래형식에서 탈피해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서 함께 화음을 맞춰가며 노래한다.

1978년 남성 독창곡으로 황의종 교수(부산대)가 작곡한 ‘승무’는 이번 무대에서 여성 이종창으로 새 모습을 드러낸다.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등의 전통악기에 풍경 목탁 훈자바라 등을 첨가해 불심을 담았다.

‘승무’ 외에도 박두진 시인의 ‘강강술래’, 이동주 시인의 ‘청산도’, 김춘수 시인의 ‘꽃’, 문정희 시인의 ‘초여름 숲처럼’은 가사가 되고, 황병기(이화여대) 황의종(부산대)



첫 정가 여성 이종창을 선보이는 아미(왼쪽)·이유경씨.

임진옥(수원대) 이만방(숙명여대) 교수, 작곡가 안현정씨 등이 곡을 붙였다.

첫 여성 이종창을 시도하는 아미미 이유경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예능보유자 김영기 선생의 첫 전수장학생이다.

시원하고 풍성한 음색을 가진 아미와 맑고 청아한 소리의 유경이 화합과 조화를 통해 ‘두 가지 색깔의 화음(二色和音)’ ‘이색적인 화음(異色和音)’을 선사한다.

7월 6일 오후7시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02)580-3300 김지연 기자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방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교의식은 불교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제2장 예경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생 제7장 재물보살경전익시 제8장 파불의식
- 제8장 점안편 제9장 이운편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編·著者 法眞 辛承都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시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最上貴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部까지 집합한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 제1장 시식편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매장 제5장 화장
-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 제5장 재공편 삼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나 지장정 영산대재 레불이은 건희소 영산장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입영생칠재(預修十往生齋)
-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禮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F:017-361-1131 ☎ 043) 264-3008, H.F: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